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년)

서울사이버대학교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정규 학사·석사 학위 취득

2013 하반기 신·편입생 모집

6월 1일(토) 부터 원서접수

2013 하반기 대학원생 모집

5월 20일(월) 부터 원서접수

입학문의 02-944-5000



최고 교수진
최첨단 16,000㎡ 캠퍼스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SCU e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Vol.20

SCU FOCUS 2013학년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SCU TODAY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명회 개최

SPECIAL THEME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김주원

SCU FLY HIGH 임실 치즈마을 양평체험장 낙농체험

2013 DT BRAND POWER

DT브랜드파워대상



인터넷소통대상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Contents

02 SCU Gallery

SCU Jump up

- 04 SCU Focus 1** 2013학년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2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식 및 입학식 풍경
- 08 SCU Today 1** 국제표준 정보보호 ISO-27001 인증 획득
2 본교 캠퍼스 세스토마스 시계탑 설치
3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명회 개최
4 제9기 해외 봉사활동 및 역사문화 탐방
5 2012 SCU 이러닝 학습수기 수상작 및 학습전략 특강
6 SCU 멘토링 제도 100% 이해하기

Special Theme

- 20 Theme Interview** 1 '감동'을 나누는 길을 향해 걷다 - 발레리나 김주원
2 국제적십자연맹 동아시아 대표단장 마틴 펠러
3 신입 교원 소개 - 정현주, 김지영 교수
4 최연소 & 최고령 신입생 (박윤규, 김서곤)
대학원생 & 졸업생 (탁미숙, 신희동)
- 30 사제지정**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 & 주정철 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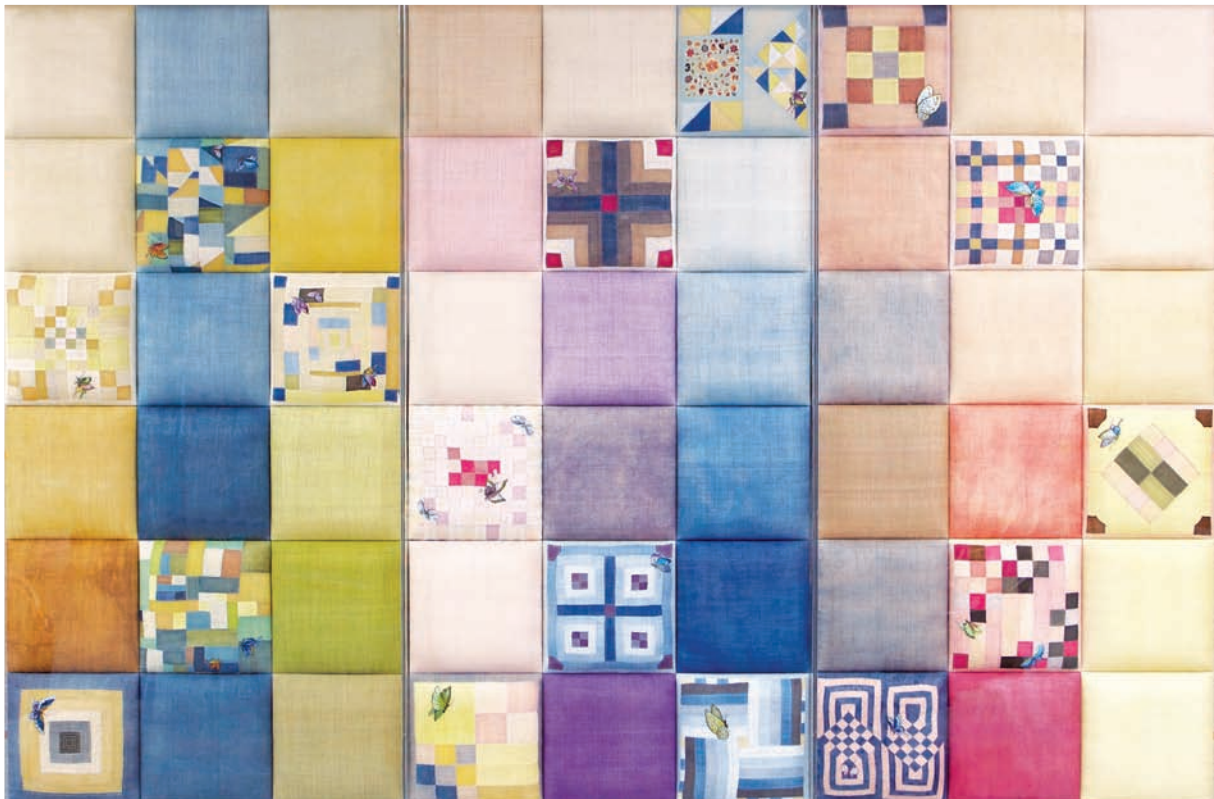
SCU Fly High

- 32 행복문화체험** 임실 치즈마을 양평체험장 낙농체험
- 36 이색 SCU 人** 노인복지학과 마종욱,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김성진
- 38 소원을 말해봐** 패밀리가 떴다! - 고병찬, 고영재, 고문선 학우

SCU Info

- 40 Essay** 희망의 등불 -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
- 42 Hello! 재테크** 연령대별 부자 아빠 되기
- 44 꼭 알아야 할 교육정보** 사이버 공격,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 46 SCU Culture**
- 47 SCU 사랑방**
- 48 SCU Network**
- 50 교수동정**

발행일 2013년 5월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차명희 교수
편집위원 김영민, 김현아, 박병석, 심선경, 홍선관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325,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최애자 교수 작품

나비의 꿈



〈나비의 꿈〉은 한국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

석한 섬유예술의 거장 최애자 교수(건국대
학교 디자인대학원)의 작품이다. 최 교수는

불모지에 가까운 섬유예술 분야에서 자연과
빛, 한지, 모시, 실크, 면 등을 이용한 천연

섬유공예와 인테리어를 접목한 작품을 바탕
으로 자연과 인테리어가 하나가 되는 그린인

테리어를 추구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현재
우리대학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전시되어 작품

으로의 가치를 드높여오고 있다.

2013학년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1박 2일 동안 기분 좋은 추억 만들고 대학생활 시작합니다!

2013학년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 에서 1박 2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사 제도 안내 및 학과 교수님과의 만남, 학습방법 특강, 동문 선배들과의 교류의 자리가 마련됐다. 기분 좋은 만남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본다.
글 | 편집부



지난 2월 16~17일 1박 2일간 충남 천안의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의 2013학년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OT)은 지난 2011년 사이버대 최초로 1박 2일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학사 제도 안내 및 학과 교수님과의 만남, 학습방법 특강, 동문 선배들과의 교류, 학과 및 지역별 만남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기존 대학에서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을 바꾼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OT는 학사안내 위주의 진행에서 벗어나 교수와 학생들의 소통을 강조한 행사로 매년 2월 진행되고 있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 강화하고, 대학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편입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인 총장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된 개회식은 교원 및 총학임원, 맞춤학기제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다. 맞춤학기제는 1년 4학기제 운영을 통해 개별 학생의 졸업 계획에 따라 맞춤 학기 이수를 지원하는 제도로 학생들은 각자 본인의 학습 목표에 맞춰 신입 학자는 3년, 3.5년, 4년, 편입학자는 1.5년, 2년 등 다양한 졸업 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편입생에게 꼭 필요한 학습 방법 소개와 리포트 작성법 특강 및 학과별, 지역별 만남이 이어졌다. 본 행사는 인기 개그맨 박영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포함된 열정 콘서트는 특히 OT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의 특별한 입학 축하공연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의 신·편입생이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하는 기회가 됐다. 2일차 일정은 특강과 지역별 모임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기존에 학사 제도 안내에서 벗어나, 함께 참여하고 웃고 즐기며 대학생활의 첫 시작에 대한 의미와 추억을 아로 새기는 뜻 깊은 행사로 마무리 됐다.

이성태 학생처장(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교수)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 만족도가 높기로 유명한 대학"이라며 "기존



01.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의 입학 축하공연.
02.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포함된 열정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

사이버대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1박 2일 OT의 신선한 경험이 알찬 대학생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00년 국내 첫 사이버대학으로 인가받은 이후 10여 년 만에 1만 2,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버대학으로 성장했다.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1만 6,000㎡의 최첨단 단독 캠퍼스를 조성해 국제회의실, 세미나실, 강의실, 실습실 등에서 재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교 캠퍼스와는 별도로 지역 캠퍼스가 경기, 강원, 부산, 광주, 대구, 광주, 충남 등 전국 8곳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11학년도 사이버대 특수대학원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학위뿐 아니라 석사학위 취득도 가능해졌다. ▲



2013학년도 입학식 모습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식 및 입학식 풍경

글로벌 스탠더드의 꿈, 함께 이뤄가요!

서울사이버대학교 2012학년도 졸업식

2월 23일(토) 성황리에 마무리된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최고령 졸업생인 가족상담학과 원병일(76세) 학우와 최연소 졸업생(91년생 3명)을 비롯해 1,916명의 재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따라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현재까지 총 1만 6,4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졸업생들을 위한 캐리커처 이벤트가 진행됐다. 학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꿈을 이룰 졸업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캐리커처를 그려준 것.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사이버대학교의



학위증 수여중인 강인 총장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대표 선서
(왼쪽 : 군경상담학과 정슬기 / 오른쪽 : 상담심리대학원 홍상훈)



리틀 싸이 황민우 군과 함께한 입학식 축하공연

특성을 살려 스마트 기기와 캐리커처를 접목시켜 완성된 제작물은 현장에서 바로 졸업생들의 메일로 전송됐으며, 꿈을 달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순간에도 자신의 각오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선물했다. 이성태 학생처장(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교수)은 “일과 병행하며 공부하는 직장인이 많은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졸업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라며, “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년 이색 졸업식을 진행하며 축제의 장으로서 졸업생과 참석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졸업식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해외 거주 졸업생과 그 가족들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졸업식 현장을 생중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013학년도 입학식

지난 3월 9일(토) 오후 2시, 서울 본교 신일캠퍼스 실내 스타디움에서 2013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됐다. 올해 서울사이버대학교에는 최고령 입학생으로 상담심리학과 김서곤(74세) 학우, 최연소 입학생으로 법무행정학과 박운규(16세) 학우를 비롯해 학사과정 4,344명과 석사과정 137명이 입학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강인 총장과 교수진이 신입생들의 희망찬 첫걸음을 응원하고 꿈을 키우는 의미로 리틀 싸이 황민우 군과 함께하는 ‘강남스타일’ 댄스 퍼포먼스를 열어 깜짝 이벤트를 선물하기도 했다. 강인 총장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계발과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러한 교육의 리더로서 신입생들에게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애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년 입학식을 통해 교수와 신입생들이 직접 만나 친밀도를 높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정보보호시스템 인증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표준 정보보호 ISO-27001 인증 획득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닝 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것. 지난 4월 18일 본교에서 진행된 국제표준 정보보호 ISO-27001 인증식 현장으로 찾아가 본다. 글 | 편집부



01. ISO-27001 인증 수여식 기념촬영.

02. 돌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와 강인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총장 강인)는 이러닝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체 프로세스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27001 인증을 취득했다. 지난 4월 18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본교에서 돌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비롯해 강인 총장, 허묘연 부총장, 이은주 부총장 등이 참석해 'ISO-27001 인증식'이 진행됐다.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으로 정책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으로 구성된 총 11개 분야, 133개 세부 항목에 대한 규격을 심사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야만 획득할 수 있는 인증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으로 손꼽힌다.

서울사이버대는 국내 21개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차세대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과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WAVE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두 차례 진행된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해 ISO-27001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정보관리에 대한 표준적 모델 및 방법론을 통하

여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정보보호활동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과 동시에 대학의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인증은 그 의미가 크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강인 총장은 “세계 명문 온라인 대학이 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우리 대학이 세계 수준의 사이버대학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내외 정보보안 환경에 맞추어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학생처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본교 교육서비스의 질적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인증을 담당한 DNV는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세계적인 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 기관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NHN, SKT, KT, 세브란스 병원 등이 인증을 수여 받았다. ISO-27001 국제정보 보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

●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보보호관리체계란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위험기반 접근 방법론에 기초하여 구축·구현·운영·모니터링·검토·개선 등의 주기를 거쳐 정보보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 **ISO/IEC-27001**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이자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으로,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정보접근 통제 등 정보보안 관련 11개 영역, 133개 항목에 대한 국제 심판원들의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인증된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유지를 위해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 100년의 시간을 잇다!

100년 전통 美 일렉트릭타임사 제작
‘세스토마스 시계탑’ 설치

서울사이버대학교 본교 캠퍼스에 아름다운 시계탑이 등장했다. 바로 명품 시계탑으로 유명한 미국 일렉트릭타임(Electric Time)사의 ‘세스토마스(Seth Thomas) 시계탑’이다. 100년의 역사를 이어줄 시계탑 그 설치 현장을 찾아가본다. 글 | 편집부

지난 4월 23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본교 캠퍼스에 설치된 일렉트릭타임사의 세스토마스 시계탑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예술작품이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다. 시계탑 디자인에 활용된 고대 초기의 주물 틀과 패턴은 미국 특허청과 문화재관리소에 자산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매우 높으며, 시계탑 디자인 중 가장 주목받는 헤드 부분은 판테온 건축양식을 빌려왔고, 상단에 첨탑이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세스토마스 시계탑을 제작한 일렉트릭타임사의 제품들은 1928년 이후 제작된 시계탑의 95%가 현재까지 문제없이 작동되고 있으며, 그 비밀은 바로 핵심부품에 있다고 한다. 내부의 쪼개진 틈 사이에 시곗바늘을 고정시키고, 강한 비바람과 불안정한 기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자동제어장치(IP65)’를 이용해 분침이 6초마다 움직이는 데 덜컹거림 없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인다. 또한 시계 내부는 알루미늄과 청동을 사용해 부식 염려가 없으며, 시계 표면 소재는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 대신 시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 유리 크리스털을 사용해 오랫동안 변함없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지일 건설본부장은 세스토마스 시계탑 완공과 관련해 “시계탑이 캠퍼스의 기존 조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며, “이 아름다운 시계탑이 앞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명물이 되어 본교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러닝 시스템, 콘텐츠 경쟁력 토대로 한류 선도!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명회 개최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프로젝트의 참여대학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25~28일까지 페낭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과학대학에서 아세안 유수의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경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글 | 편집부

한국과 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을 아우르는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프로젝트(ASEAN Cyber University Establishment Project, 이하 ‘ACU 프로젝트’)’ 참여할 대학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3박 4일간 페낭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과학대학에서 아세안 유수의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 2009년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수린 핏수완 ASEAN 사무총장은 한국의 IT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 간 교육 및 인적자원 교류 확대를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을 한국에 건의한 바 있다. 한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1년에 교육부로부터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프로젝트의 주 협력대학으로 선정됐다. 이후, 12종의 콘텐츠 개발과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소재 대학 간 학점교류, 국제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01.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 설명회 현장.

02. 현지 학생들에게 이러닝 강의 체험과 ACU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왔으며, 올해부터는 참여국의 범위를 나머지 6개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대학 연합(AUN)의 회원대학으로서 각국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인정받는 태국의 출라롱콘대학, 말레이시아과학대학,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필리핀 드라살 대학,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 대학, 라오스 국립대학, 미얀마 양곤대학 등 23개 대학의 부총장 및 국제교류처장 등을 만나 본 사업의 성과와 학점교류 등 협력방안을 소개·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대학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사이버대학이 주축으로 개발한 콘텐츠의 우수성을 공감했으며, 단계적으로 학점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카말(Kamal) 부총장보 및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콘텐츠와 ACU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설명회 이후 USM의 원격교육대학 하시미(Hasimi) 부학장은 “ICT 분야의 질 높은 강의를 인상적이었으며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및 학점교류를 통해 단계적으로 파트너십의 범위를 넓혀가길 희망한다”며 협력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이러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수강

자 확보를 위해 홍보행사도 마련했다. 캠퍼스 내에 홍보부스를 통해 본교의 다양한 이러닝 강의체험과 ACU 프로젝트를 알렸고, 이 자리를 통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러닝 강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밖에 현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닝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의 ICT 활용 현황과 교과목을 알아보는 한편, 향후 ACU의 콘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회원대학 확장 및 시스템 고도화와 콘텐츠 표준화를 실시하기 위해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박소화 부국장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사를 통하여 프로젝트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아세안의 여러 대학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고등교육 발전 도모 및 한국과 아세안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박소화 부국장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추진위원회

●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ASEAN Cyber University Establishment Project): 아세안 사이버대학교는 한국과 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을 아우르는 사이버대학교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국가 간 연합대학을 지향한다. 지난 2009년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됐으며, 2011년 12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교육부에 의해 한국 측 주 협력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9기 해외 봉사활동 및 역사문화 탐방

베트남 호치민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년 두 차례씩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제9기 해외탐방팀이 베트남 호치민으로 봉사활동과 역사탐방을 다녀왔다. 인솔교수인 이성태 학생처장(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상담심리학과 김순복 학우를 만나 3박 5일간의 뜨겁고 진솔했던 시간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 편집부

설렘과 긴장을 안고 베트남으로 이성태 교수는 “온라인 대학의 특성상,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 학생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대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본연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아주자는 취지로 매년 해외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외탐방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 그 취지에 걸맞게 매년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의 이번 목적지는 베트남 호치민. 지난 1월 25일 오후, 참가자 27명과 인솔교수인 오창환 교수(컴퓨터정보통신학과)와 이성태 교수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3박 5일의 해외탐방 기간 동안, 탐방팀은 한·베 고아원 방문과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제9기 동계 해외탐방 및 사회봉사 참가자 단체사진.



01. 이성태 학생처장(뉴미디어 콘텐츠공학)과 김복순 학우(상담심리학과)를 만나 호치민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02. 인솔 교사인 오창환 교수가 사랑의 집짓기 수혜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모습.



한·베 고아원과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첫 번째 봉사 장소는 한·베 고아원. 탐방팀은 아이들에게 태권도와 호신술을 가르쳐주고 꼬리잡기 등의 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말이 안 통하니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색함이 가실 때쯤, 고아원 마당에 우물을 파서 만든 수영장이 보이더라고요. 여벌의 옷이 없다는 계산도 없이, 모두 물에 뛰어 들어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조금은 경계하던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걸 느꼈죠.”

짧은 만남에도 아이들과 헤어지기가 아쉬웠다는 김순복 학우. 고아원에서의 시간은 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봉사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날에는 사랑의 집짓기에 나섰다. 학교 측에서 마련한 성금으로 기초 공사는 마친 상태. 탐방팀은 바나나 잎을 엮어 벽을 만드는 작업을 맡았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뤄진 힘든 작업이었지만, 멋진 팀워크 덕에 예상 시간보다 빨리 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 김순복 학우는 “집을 기증받는 할머니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저희에게는 별것 아닌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역사탐방, 베트남과 한 발짝 가까워진 시간 봉사활동과 함께 역사탐방도 진행되었다. 팀원들은 메콩강 투어와 중앙 우체국, 시청 청사 등의 시티투어, 베트남전쟁 당시의 지하요새인 구찌터널 답사 등을 통해 베트남에 대해 새롭게 아는 계기를 가졌다. 현지 안내를 담당 한 최창익 가이드의 풍부한 지식은 역사탐방을 더욱 풍성한 시간

으로 만들어주었다. 석유와 쌀 등의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은 30대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젊은 나라이기도 하다. 그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결코 우리가 강대국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볼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이성태 교수의 설명이다. 베트남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역사탐방은 팀원들에게 베트남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그 나라를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3박 5일의 짧은 여정이 남긴 긴 여운 제9기 해외탐방 참가자들은 귀국한 후에도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 고심 중이다. 김순복 학우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를 한국에서도 지속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려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태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학문에만 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탐방과 같은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시야를 넓히기를 바랍니다”라며 학생들을 향한 바람을 전했다. 김순복 학우 역시 학우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3박 5일의 짧은 여정은 그보다 훨씬 긴 여운을 남겼다. 삶의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소외된 이웃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기회인 서울사이버대학교 해외탐방 프로그램. 앞으로도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우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012 SCU 이러닝 학습수기 수상작 및 학습전략 특강

누구보다도 뜨거운 학구열을 지닌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들. 하지만 강의실이 없는 사이버 학습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열정만큼의 학습 효과를 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학우들을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년 'SCU 이러닝 학습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서로의 학습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2 SCU 이러닝 학습수기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윤광숙 학우의 이러닝 학습 노하우는 과연 무엇일까? 윤광숙 학우를 직접 만나 그 비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 편집부

지난해 열린 '2012 SCU 이러닝 학습수기 공모전'에서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회복지학과 윤광숙 학우가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3월 16일,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는 대상 수상자인 윤광숙 학우를 비롯하여 최우수상 2명(상담심리학과 박길수, 상담심리학과 박승미), 우수상 3명(군경상담학과 이종원, 노인복지학과 함정옥, 상담심리학과 김정애)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2012 SCU 이러닝 학습수기 대상 수상자
사회복지학과 윤광숙 학우

이러닝 학습의 시작, 시간 관리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는 법이다. '2012 이러닝 학습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윤광숙 학우는 이러닝에 있어서도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주부인 저는 가족이 집을 나서고 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를 공부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이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윤광숙 학우의 첫 번째 비법이다.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자신과의 싸움인 이러닝 학습에서는 "오늘 하루만 쉬자"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한 시간 관리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상담심리학과 박종선 교수의 '이러닝 학습전략 특강'도 함께 열려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박 교수는 여러 학습 전략 중에서도 "이러닝은 오프라인 강의보다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하다.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결국 공부해야 할 양이 밀려 지치게 된다"며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이 끝난 후 박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큰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기왕이면 학점을 위한 공부만이 아닌,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부를 했으면 한다"는 바램과 함께 "앞으로 수기 공모전도 학습 전략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으로 주제를 넓혀,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상담심리학과 박종선 교수

과제 관리와 강의도 꼼꼼하게 챙겨야

과제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온라인으로 리포트나 토론 일정을 챙겨야 하는 사이버 학습의 특성상, 자칫 과제 일정을 놓치기 쉽다. "저는 메모지를 활용해 리포트와 토론 일정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요. 모니터 상단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제출 일자를 기록합니다." 이처럼 메모를 습관화하는 윤광숙 학우는 한 번도 과제 일정을 놓친 적이 없다.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목록을 지우고 또 새로운 과제들이 공지되면 메모하기를 반복했다. 과제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강의다. 각 과목의 교안을 제본해 놓으면 강의에 집중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강의를 들을 때 이어폰을 착용해 주변 잡음을 피하는 것 역시 윤광숙 학우의 노하우. 그는 핸드폰 등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미리 정리한 후 강의를 듣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자칫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활동 참석으로 학습에 활력을

체계적인 학습방법과 시간 관리에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다. 그런 슬럼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윤광숙 학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우들과 학습 자료를 공유하거나 고민 상담을 한다. 특강 등의 오프라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녀의 학습 전략이다. "교수님들과 직접 교류하고 학우들을 만나다 보면 의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좀 더 즐거운 대학생활을 누릴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 활동은 학습 과정 자체에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학습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광숙 학우는 마지막으로 "이번 수기 공모전이 제 공부 방법을 되돌아보고 다시 스스로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말처럼 '이러닝 학습수기 공모전'은 앞으로도 참가자와 학습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공부 방법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SCU 멘토링 제도 100% 이해하기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있나요?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주는 유경험자,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의 의미로 사용되는 멘토(Mentor).
서울사이버대학교 멘토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선후배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 멘토링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글 | 편집부

‘멘토’는 ‘오디세이아(Odssey)’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트로이전쟁’ 당시 그리스 연합국 소속인 이타카국의 왕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징병되면서 어린 아들(텔레마코스)을 자신의 절친이자 조언가인 멘토르에게 맡기게 됐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10여 년 동안 멘토르는 텔레마코스

에게 때론 친구이자 조언자로, 스승, 상담자, 아버지 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훌륭하게 그를 양육하게 되었다.
어느덧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상봉하게 되는데,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한다.



2013년도 1학기 멘토링 워크숍

“역시 자네야! 역시 멘토르(Mentor)야!”

그 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한 사람의 지혜와 신뢰를 이끌어주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멘토링 평가회 통해 멘토링 활동 점검, 우수 활동자 시상

SCU Mentoring은 멘토(재학생 선배)가 멘티(신·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도와 멘티가 대학생할을 효과적·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 3일 본교에서 2012학년도 2학기 멘토링 평가회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멘토링을 통해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자리로, 우수 멘토&멘티 선정 및 시상, 멘토링 활동을 통한 수기공모 수상자 발표, 다과회 등으로 진행됐다. 멘토링 수기공모 심사를 통해 대상 김명순(노인복지학과) 학우, 최우수상 김명옥(사회복지학과) 학우, 우수상 김정애(상담심리학과) 학우가 선정되었다.

멘토-멘티로 만나는 첫 번째 모임, 멘토링 결연식

3월 9일에 진행된 2013학년도 1학기 멘토링 결연식에서는 총 108개 그룹의 멘토와 멘티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멘토(선배학습자)의 지원 자격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3.0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하며, 멘티(후배학습자)는 직전학기 재학생, 신·편입생으로 구성된다.
지난 1월 말 멘토 모집을 시작으로 신·편입생들의 멘티 신청을 받아 2월 중 매칭 작업이 이뤄졌다. 매칭은 1:1에서 상황에 따라 다수의 멘티들로 구성된다.

멘토링 참가자들의 혜택으로는 멘토에게 학기당 사회봉사 1학점이 부여되며, 활동은 총 2학기 제한된다. 또한 그룹별 온라인 게시판 제공, 멘토링 이벤트를 통한 상품 지급, 활동 포트폴리오 당선자 상품 지급 및 기타(해외탐방, 문화 이벤트 등) 혜택 우선권이 부여된다. 팀 매칭 기준은 학과와 지역이 우선시되며, 총 18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멘토링 워크숍 통해 ‘지도 활동 노하우’ 공유

3월 23일 진행된 2013년도 1학기 멘토링 워크숍은 멘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권구순(교양학부) 교수의 멘토링 특강을 통해 멘토의 어원, 자질, 활동 방법을 소개했고, 기존 멘토링 활동 멤버 중 우수 멘토를 초빙해 실질적인 활동 예시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Tip 전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SCU 멘토링 제도를 이끌어나가는 수장인 학생처 유성인 주임은 “2008년부터 시작된 SCU 멘토링 제도는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선후배 간의 관계가 편해지고 모임과 만남이 활성화됐다”며 “신·편입생들이 초기에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졸업율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처 유성인 주임은 올 2월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학생들의 복지와 대학생할 전반을 총괄하는 담당자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체 사이버대 교직원들의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유 주임은 “멘토를 모집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라며 “현재 멘티들이 또 다른 멘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감동’을 나누는 길을 향해 걷다

발레리나 **김주원**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발레리나 김주원, 호소력 짙은 연기와 섬세한 테크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발레리나다. 2006년에는 무용계 최고의 영예인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 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발돋움했으며, TV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 심사위원, 유니세프 홍보대사,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 전공까지. 그녀의 활동영역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보는 결국 하나의 길로 향한다. 바로 사람들과 ‘감동’을 나누는 일이다.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예술이라고 말하는, 아티스트 김주원을 만났다.

글 | 편집부

김주원의 〈마그리트와 아르망〉 리허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도전

김주원은 최근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지난 2012년 7월, 15년간 활동했던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자리를 떠나 홀로서기를 선택한 것.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첫 공연인 〈마그리트와 아르망〉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마그리트와 아르망〉은 전설의 안무가 프레더릭 애슈턴의 작품으로, 아무에게나 공연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주원은 동양인 최초로 〈마그리트와 아르망〉을 공연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공연에서 김주원은 발레리나로서의 역할은 물론, 기획부터 예술 감독까지 맡으며 공연을 주도했다. 발레리나가 발레단에 속하지 않고 1인 기획공연을 올리는 것은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독보적인 행보에 대해 김주원은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유럽에는 저처럼 활동하는 발레리나가 많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라는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은 것은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아티스트로서의 바람 때문이다. “우물 안에 갇혀 있기는 싫었어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죠.”

주어진 일만 하면 되었던 때와 달리, 홀로서기를 한 후에는 모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한다. 그 과정은 물론 녹록지만은 않다. 그러나 김주원은 그 모두가 “예술가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마그리트와 아르망〉에 이어 5월에는 다양한 장르 간의 결합 공연인 〈레플리카〉에 참여할 예정이다.

“마그리트와 아르망이 순수한 발레 작품이었다면, 이번 공연은 융합예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예술 장르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습니다.”

감동을 나누는 아티스트, 김주원

다양한 예술 장르에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는 김주원은 뮤지컬과 강의, 방송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나이기도 하다.

“발레리나는 몸의 언어를 지닌 사람이잖아요. 몸으로 이야기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발레 테크닉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통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런 경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저의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런 김주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감동을 나누는 일이다. 그는 서로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예술이라고 믿는다. 김주원이 유니세프 홍보대사



를 맡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발레는 무대에서만 관객을 만나는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감동을 나눌 수도 있구나, 이게 바로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던 김주원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고, 현재는 본교 대학원에 재원 중이다. 공연과 연습 등으로 바쁜 김주원에게 새벽시간에도 잠을 내어 공부할 수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최적의 선택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레를 매개체로 하여 더 많은 이들과 감동을 나눌 수 있기를 꿈꾼다.

흔히들 가녀린 몸과 우아한 몸짓의 발레리나를 꽃에 비유한다. 그러나 자신의 공을 과장하거나 명분을 꾸미는 법 없이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김주원은, 가녀린 꽃이 아닌 그 꽃을 품은 단단한 땅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라는 땅 위에 더 아름다운 작품을 꽃 피우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자양분을 흡수하고 있다.

김주원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거창한 포부 대신 “그냥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서 관객과 만나고 감동을 나누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미래에 대한 포부가 없는 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지만 그가 지닌 현재 진행형의 충실함이, 오히려 김주원의 내일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



해외석학, 마틴 펠러를 만나다

“이러닝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새로운 패러다임 완성 기대”

국제적십자연맹 동아시아 대표단장 **마틴 펠러**

마틴 펠러(Martin Faller) 국제적십자연맹 동아시아 대표단장이 북한 관련 비공식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북한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동아시아 국가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그를 권구순 교수(교양학부)가 만났다. 글 | 편집부

마틴 펠러 대표단장이 이끄는 국제적십자연맹은 동아시아 지역의 자연재난 관리, 보건의료 증진, 청소년적십자의 육성지원, 그리고 연맹과 파트너십을 맺은 각국 적십자사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연맹은 특히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북한과 몽골, 중국의 재난예방과 인도적 지원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연맹, 북한에서 선도적 지원 사업 실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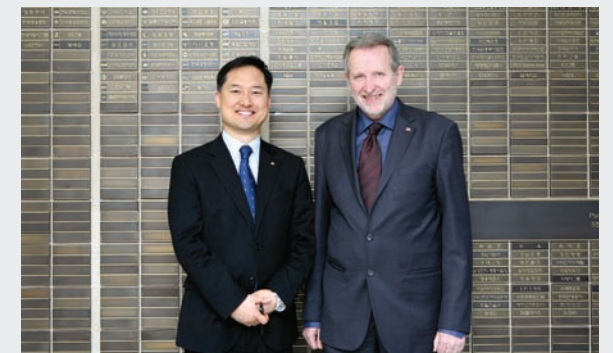
연맹은 북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각종 재난 대비와 재난 발생 시 대응과 복구업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 시 취약할 수 있는 제방이나 교량 등 인프라 시설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구호창고 건립 및 각 창고에 구호물품을 적재해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정부와 북한적십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과 관련된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300여개의 보건센터가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간단한 의로기기 보급과 관련된 연수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행위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동향이 연맹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난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북한 지원활동을 해오면서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전문적으로 대응방식을 발전시켜왔으니까요.”

회원 적십자사 교육 위해 이러닝 프로그램 운영

연맹은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회원 적십자사 임직원 및 봉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육방법도 모색했다. ‘Learning Network’라는 통합 이러닝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코스는 봉사 분야 지도자과정, 글로벌 보건과정, 인도주의적 외교과정, 재난관리 전문가과정 등이 있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대학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러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적십자사의 경우 열악한 IT 인프라 환경으로 이러닝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연맹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국 적십자사 등의 후원을 받아 글로벌 플랫폼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틴 펠러 대표단장이 이끄는 국제적십자연맹은 동아시아 지역의 자연재난 관리, 보건의료 증진, 청소년적십자의 육성지원 등 각국 적십자사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적십자사의 역할 앞으로 더욱 기대돼

국제적십자연맹은 각국의 적십자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연맹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회원적십자사 지원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죠. 연맹은 한국정부와 한국적십자사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국적십자사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재학생 및 졸업생 중에는 개도국에서의 자원봉사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복지와 관련해 지속적인 경험을 쌓고 있다.

마틴 펠러 대표단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국내 사회복지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실했다. 그리고 ‘국가 간 경계와 무관하게 개발도상국의 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방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



서울사이버대학교 신입 교원 소개

“선배 교수님들의 열정에 부끄럽지 않은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교수 (상담심리학과) | 서울대학교 문학사(심리학과), 서울대학교 문학석사(임상상담심리 전공), 서울대학교 심리학박사(임상상담심리 전공) - 좌측
정현주 교수 (사회복지학과) | 가톨릭대학교 문학박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사 - 우측

매서운 겨울 바람을 가르며 출근한 자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꽃잎을 전해준다고 이야기하는 정현수, 김지영 교수를 만났다. 지난 2월 1일자로 부임한 뒤, 정신없이 달려온 몇 개월, 새 동지를 틀고 구슬땀을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각오와 응원 메시지를 들어본다. 글 | 편집부

진행 늦었지만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맡고 계신 학과 및 연구 분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현주 교수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연구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면화 문제행동 감소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지영 교수 저는 상담심리 소속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소아정신과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공부했고 정신병리, 심리치료, 긍정심리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부임하게 된 계기나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현주 교수 지금까지 축적해 온 학문적 역량을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특히 배움에 대한 강한 니즈(Needs)가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대학의 특성상, 간과하기 쉬운 학생들과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몸을 사리지 않는 교수님들의 열의가 놀라울 만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지영 교수 부임 당시 입시로 한창 바쁜 시기였는데, 전 교직원 이 한 마음으로 보여준 열의에 저 또한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이버대학 1위라는 명성에 자만하지 않고,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 이상으로 더 크게, 그리고 더 넓게 발전해 갈 SCU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 기존에 알고 계신 SCU와 실제로 부임하게 되어 느낀 SCU는 어떤가요?

김지영 교수 막연하게나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 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와서 보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기에 부족함 없는 시스템과 SCU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선배 교수님들의 모습이 제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현주 교수 SCU의 강점과 우수함으로 우선 수준 높은 강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교육의 우수한 질을 담보해 내는 시스템, 셋째로 학생관리가 꼼꼼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학교와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쏟는 정성이 매우 크다는 점,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생들 간, 학생과 교수님들 간의 교류가 온라인상에서만 아닌, 오프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 교수님만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김지영 교수 학생들은 저마다 강점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자가 학생의 강점이 발휘되도록 이를 반영해 주고, 코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학생들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 교수와 학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해 갈 때, 저는 우선 굳건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라면 분명히 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마음껏 채워나갈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SCU에는 비교적 뒤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분들이 많지만, 이러한 분들의 열의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은 꿈들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교수로서, 인생에 반 발자국 앞서나간 선배로서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진행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2013년 SCU 신·편입생 및 재학생 분들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 정현주 교수 우선 쉽지 않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배움을 위한 결심과 도전을 하신 학생 여러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엇그제 학기가 시작했는가 싶더니 곧 있을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머리로 하는 걱정이 아니라, 손과 발로, 몸으로 체득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몸으로 학습 습관을 익혀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교수님들, 학우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루하루 보람 있는 나날을 가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뛰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

● 교수진 보직 변경 사항



휴먼서비스대학원장 겸
상담심리대학원장

사회복지학과
정영애 교수



입학처장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완형 교수



교양학부장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



평생교육원장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



대외협력실장 겸
출판부장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



산학협력단장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

SCU 4人, 도전과 열정에 대해 말하다



‘불가능’을 모르는 16세 신입생의 꿈!

16세, 최연소 신입생

박윤규 학우(법무행정학과)

아직은 ‘소년’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최연소 신입생 박윤규 군의 꿈은 ‘검사’가 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도전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한 것.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두 주먹을 불끈 거머쥔 그의 도전과 용기는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감동으로 다가왔다.

초등학교 졸업을 며칠 남겨둔 어느 겨울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병명도 생소한 백혈병 진단. 박윤규 학우의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어 추운 줄도 모르고 입던 옷 그대로 서울의 큰 병원으로 향했다. ‘오진일 거라고, 의료진의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항암치료는 당시 14세이던 박윤규 학우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점차 현실이 되었다. 1년 여의 항암치료를 견뎌내고 집으로 돌아온 박 학우의 건강이 점차 호전되어갔던 것. 그렇게 2년여 준비 끝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었다.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쯤 윤규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됐고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게 됐죠. 무엇보다 그저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 가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박윤규 군의 어머니는 기회가 닿으면 꼭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 아들과 배움을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린 대학생에게 학업은 그리 녹록지 않다. 특히, 영어 공부가 늘 부족하다고,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과제 제출, 시험 공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또래 아이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 중이다.



“멘토링 제도라는 것도 있더군요. 다음 학기에는 꼭 신청해 봐야겠어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수줍게 웃는 박윤규 군을 보니 가슴에 먹먹한 감동이 전해졌다. 이제 그토록 바라왔던 원치 판정을 앞두고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박윤규 군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삶은 곧 ‘도전’의 연속!

74세, 최고령 신입생

(주)솔고바이오메디칼 대표이사
김서곤 학우(상담심리학과)

그에게 7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켜켜이 쌓인 ‘도전의 훈장’을 의미하는 숫자일 뿐, 결코 노쇠를 의미하는 숫자는 아니었다. 국내 최초로 수술기구를 생산하여 의료기기 국산화를 선도했고, 이제는 헬스케어사업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강소기업의 수장(首長)다운 행보였다.



김서곤 학우(74세)는 ‘인생은 도전’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가감 없이 피력했다. “인생에서의 선택은 필시 도전을 수반합니다. 나아가면 나아가는 대로, 안주하면 안주하는 대로 말이죠. 그 도전의 기로에서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 학우가 올해 들어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이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비전인 ‘건강을 파는 건강한 회사’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와 정신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었던 것. ‘몸과 마음의 균형적인 건강’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의 도전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앞찬 강의와 함께 순항 중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뒤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내실 있는 강의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대표이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수료한 학업과정이 열 손가락을 훌쩍 넘길 만큼 열심히 공부해 온 김 학우는 이번 학사과정을 마친 후 내쳐 석사·박사과정까지 밟을 예정이다. 배움을 향한 그의 끝없는 열정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만학도는 스무 살 신입생처럼 눈빛을 밝히며 자신의 목표를 역설했다. “2020년까지 심리학 박사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김서곤 박사!’ 이 얼마나 멋진 직함입니까! 안 그래요?(웃음)” ▲



‘도전’은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

대학원생

탁미숙 학우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몇 년 전 SBS ‘스타킹’에 한 탈모 전문가의 탈모 예방법이 방송돼 큰 화제가 되었다. 올해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탁미숙 학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0여 년 간 탈모 전문가로서 치료법 연구에 몰두해 온 탁미숙 학우는 최근 KBS ‘생로병사의 비밀’, MBC ‘오늘 아침’에 출연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탈모는 88.3%가 정신적인 영향으로 발생해요. 사람 심리에 대해 공부할 필요를 느꼈죠. 그래서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두 자녀의 엄마로, 두미래 원장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탁미숙 학우는 아직 궁극한 게 많아 배움을 멈출 수가 없다고. 그런 점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저처럼 일하는 사람에겐 직접 가지 않아도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해요. 서

울사이버대학교는 본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또 전공을 잘 선택하면 자신이 하는 일과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요.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 탈모로 고민하는 어린이가 찾아왔을 때 교수님께 배운 대로 눈높이를 맞춰 상담했더니 치료 과정을 잘 따라와 주더군요. 벌써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탁미숙 학우는 사회복지학과 과정을 마치면 대체의학 등 다른 분야를 더 공부할 계획이고, 직접 개발한 ‘탈모두피 사우나’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한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도전을 멈출 수 없다는 탁미숙 학우가 꿈꾸는 삶은 무엇일까.

“아직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은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니까요.”

‘학과의 전설’ 동문들을 끌어안다.

졸업생

신희동 동문(부동산학과 졸업)

신희동 동문은 ‘전설’로 불린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 학과를 졸업한 이후 꾸준히 학업에 매진해 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최초로 법학박사가 되었기 때문. 현재 그는 대학에서 부동산과 법학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경치 좋은 양평에서 펜션(더큰나무펜션, www.thebigtree.co.kr)도 운영 중이다.



“9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해오다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했어요. 훌륭한 교수님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죠. 그러나 대학원 진학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과장님께서 제게 용

기를 주셨어요.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있고요. 제게 소중한 디딤돌이 되어준 학교를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대 부동산학과 동문회장직을 맡았고 현재까지 동문들, 교수님들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올해 부동산학과 동문회는 신희동 동문의 펜션에서 열렸다. 약 70명의 동문이 모여 유쾌하게 안부를 나누고, 올해 처음 발족한 ‘부동산비즈니스포럼’에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사이버대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문들과 지속적이고 끈끈한 교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그는 ‘같은 업계에서 일한다는 공통

점’을 꼽았다. 동문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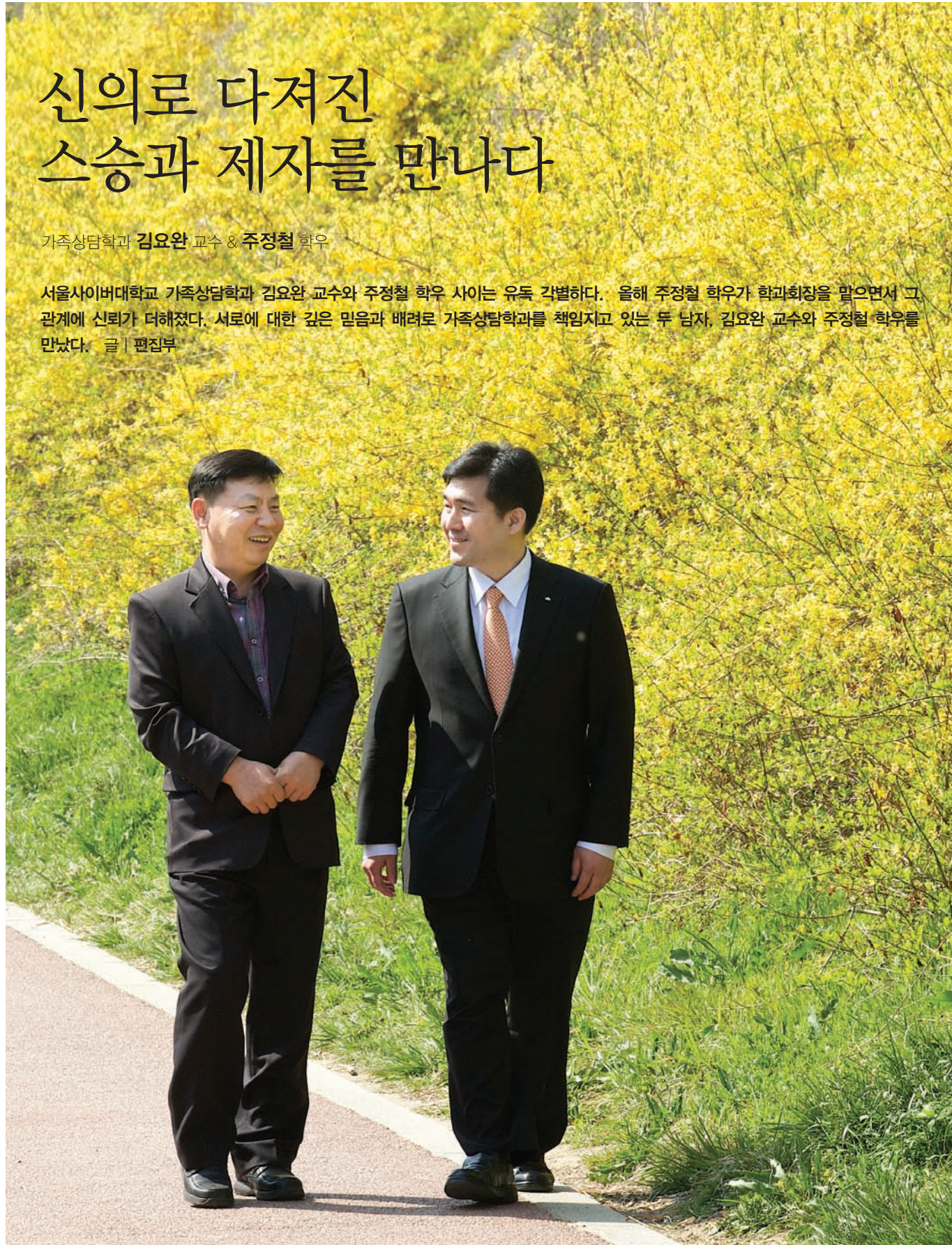
“부동산학과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폭넓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요. 후배들이 저보다 더 동문회를 잘 이끌어줘 고마운 마음입니다.”

학과의 전설이라는 별명이 부당스럽기도 하지만 그 덕에 한시도 허투루 살 수 없다는 신희동 동문.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

신의로 다져진 스승과 제자를 만나다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 & 주정철 학우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와 주정철 학우 사이는 유독 각별하다. 올해 주정철 학우가 학과회장을 맡으면서 그 관계에 신뢰가 더해졌다.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배려로 가족상담학과를 책임지고 있는 두 남자, 김요완 교수와 주정철 학우를 만났다. 글 | 편집부



주정철 교수님과 인연을 맺은 지도 3년째가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매달 인덕원 캠퍼스(경기지역 학습관)에서 진행되는 스터디 모임을 지도해주시는 덕에 꾸준히 인연을 쌓을 수 있었네요. 올해 제가 학과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교수님과의 관계가 한층 각별해진 것 같습니다.

김요완 교수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회장직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락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늘 적극적이고 따뜻하게 학과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철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이죠. 얼떨결에 회장직을 맡게 된 제가 부담을 가질까 봐 늘 ‘할 만큼만 하라’고 부담을 덜어주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학업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통해 배우는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삶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작년에 수강한 ‘성교육 성상담’ 강의가 특히 기억에 남네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수업에서 배운 것을 아내와의 관계에서 많이 활용했어요. 가족상담학과 수업 덕분에 가정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웃음).

김요완 교수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학과에 진학하는 학우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졸업장이 필요한 분, 상담 전문가가 되고픈 분,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욕구가 강하신 분이죠. 주정철 회장님은 세 번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열정이 크신 것 같아요. 상담 공부를 하다 보면 어설픈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선불리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늘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에 배운 것을 적용하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것은 상담자에게 무척 중요한 자질이예요.

주정철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웃음). 몇 해 전 삶의 의미를 잃고 무력해진 적이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해야겠다는 마음에 심리 공부를 하던 중,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렇게 말을 들인 이곳에서 교수님을 만난 것이 제게는 참 소중한 인연입니다. 자주 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수님이 참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김요완 교수 맞아요. 우리 학과의 특성상 동료 상담자 훈련을 통해 자기개방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죠. 스터디 모임에서 내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회장님도 본인의 삶을 많이 개방하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정철 제가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을 뵈면 늘 따뜻한 아버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요완 교수 처음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를 맡았을 때는 나이가 어려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다. 우리 학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스스로가 교수라는 정체성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나이로 인한 위계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회장님을 비롯한 학우들이 저를 좋아해 주고 존경해 주셔서 가능한 일 같습니다. 존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웃음).

주정철 존경합니다, 교수님(웃음).

김요완 교수 이런 고백까지 듣다니. 참 좋은 자리인데요?(웃음)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주정철 저도 교수님과 훨씬 친밀해진 느낌입니다. 가족상담학과 학업을 통해 제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김요완 교수님을 수퍼바이저 삼아 앞으로 제가 가야할 길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스승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교수님. ★



임실 치즈마을 양평체험장 낙농체험

열혈학도 4인방,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다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무색할 만큼 화창한 봄날, 봄보다 더 화사한 네 학우가 설레는 나들이 길에 올랐다. 그 주인공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2013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첫 단추를 꿰 고한나(상담심리학과 4학년) 멘토와 장분연(상담심리학과 3학년) 멘티, 김은숙(상담심리학과 3학년) 멘티, 김남희(상담심리학과 1학년) 멘티다. 동심으로 돌아가 웃고 떠드는 사이, 한층 가까워진 그들의 특별했던 하루. 글 | 편집부



특별한 인연을 맺다

시작은 늘 설렘과 불안을 동반한다. 그 불안한 출발점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있다면 그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을까.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서사대)는 학업이라는 출발점에 선 학우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학년 멘토와 후배 멘티를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역시 많은 학우들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가운데, 108명의 멘토와 400여 명의 멘티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상담심리학과 고한나 멘토와 6명의 멘티도 소중한 인연의 첫 단추를 꿰었다.

총 7명의 그룹원 중 고한나 멘토와 장분연 멘티, 김은숙 멘티, 김남희 멘티가 이번 나들이에 동행했다. 몇 번의 오프라인 만남으로 안면을 튼 이들도 있지만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한 팀원도 있다. 하지만 서먹함도 잠시, 마지 멘토·멘티들을 위해 갠 듯한 날씨에 분위기는 절로 화기애애 해진다. 고한나 멘토는 “곧 중간고사 기간이라 마음이 바쁘는데 오늘은 다 잊고 신나게 놀아야겠어요”라며 들뜬 마음을 전했다. 서사대의 새내기인 멘티들은 대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이버대학의 한계를 멘토링 프로그램이 보완해 주리라는 기대감이 크다. 김은숙 멘티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웃음). 혼자서는 꾸준히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라며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동기를 밝혔다. 그런 멘티들의 마음을 헤아리더라도 한 듯, 고한나 멘토는 직접 정리한 중간고사 시간표와 자격증 관련 정보 등을 멘티들에게 나눠 주며 세심한 조언을 잊지 않는다.





01. 발효된 치즈 덩어리를 반죽해 얇게 늘리는 작업은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
02. 모차렐라 자연치즈와 피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든 하루.



열혈 학도 4인방의 자연 치즈와 피자 만들기

오늘의 목적지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임실치즈마을 양평체험장. 체험
과제는 모차렐라 자연치즈와 피자 만들기다. 자연 치즈에 대한 강사의 설
명이 끝난 후, 우유에 유산균과 효소를 차례로 넣고 기다리는 과정이 이어
진다. 시간이 지나자 효소를 넣은 우유는 서서히 굳기 시작한다. 아이처럼
신기하게 그 과정을 바라보는 멘토와 멘티들. 그룹 내 ‘해피 바이러스’인 김은숙 멘티는 “효소가 살아 있
네, 살아 있어”라고 농을 던지며 그룹원들을 웃게 만든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우유는 8시간의 발효 후 치즈 덩어리로 변신한다. 치즈마을 측에서 미리 준비한 치
즈 덩어리에 뜨거운 물을 넣고 뭉치는 작업이 이어졌다. 오순도순 모여 치즈를 반죽한 후 얇게 늘리기 시
작! 이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힘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팀원 모두의 참여와 열의가 균형
있게 뭉쳐져야 잘 굴러가는 멘토링 그룹처럼.
치즈 완성 후에는 피자 만들기에 도전했다. 피자 도에 토핑을 얹고 장식을 하는 멘토와 멘티들의 자세
가 자못 진지하다. 특유의 학구열은 어디서나 빛을 발하기 마련인지, 과정 하나하나에 열심히 참여하고
강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학생의 면모다.

서로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꿈꾸며

직접 만든 피자도 점심식사를 한 후, 야외로 자리를 옮겼다. 치즈마을이 위
치한 양평은 황순원 작가를 기리는 문학관이 설립된, 일명 ‘소나기 마을’이
다. 이름처럼 소박하고 정겨운 동네를 무대 삼아 시작된 추억의 놀이 삼매
경. 제기차기부터 굴렁쇠 굴리기, 트랙터 타기, 투호까지...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며 멘토와 멘티들은 소설 〈소나기〉속 소녀가 된 듯 동심으로 돌아갔다.
장분연 멘티는 “조금은 서먹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훨씬 친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멘토링 프로그램
을 통해 대학생활 자체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해요”라고 오늘의 소감을 전한다.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한층 친밀해질 수 있었던 하루. 앞으로도 멘토와 멘티들은 꾸준하고 친밀한 관
계 형성을 통해 서로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고한나 멘토는 “각자의 목표를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
겠어요”라면서 자격증 준비를 위한 스터디모임 등 구체적인 행보를 계획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앞으로 그룹의 상징이 될 그룹명이 탄생했다. 만장일치로 정해진 그룹명은 ‘빛과 소금’. 세
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 빛과 소금처럼, 그룹원 각자가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아가 서로에게도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자는 의미다. 그 의미대로 그룹원들은 멘토가 도움을 주고 멘티는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서로에게 든든한 길동무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룹 이름 그대로 서로가
서로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트랙터 타기, 투호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동심으로 돌아간듯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2011학년도 입학
바둑 지도사, 색소폰 연주자, 다사랑 예술단 기획실장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

노인복지학과 **마종욱** 학우

1992년 해외 근무 당시, 매콩강을 바라보며 색소폰 연습을 시작했다는 마종욱 학우. 취미로 시작한 음악이 인연이 되어 4년 동안 음악학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을 음악학원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마 학우가 운영했던 음악학원의 교육생이던 학생이 어느덧 아들의 스승이 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횃수로 21년째 색소폰을 연주해오다 보니 이제껏 사용해온 마우스피스도 대략 20개 정도.

무엇보다 색소폰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의 목소리에 가장 근접한 악기라는 점. 따라서 음악에 대한 이해와 해석, 집중력, 그리고 박자나 음정, 리듬의 컨트롤은 색소폰 연주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게 마 학우의 설명이다.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내 임동순 학우(노인복지학과 4학년)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 ‘호르는 강물처럼’을 연주할 줄 아는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다. 현재 문화예술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데 순탄하게 졸업한 뒤, 아내와 함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소망이라며 수줍은 미소를 짓는 그의 어깨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살포시 내려 앉았다.

“드럼 동아리 연습날은 월요일도 한 방에 날려 보내요”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김성진** 학우

드럼 동아리 창립 멤버로 2달 정도 활동을 이어온 김성진 학우는 드럼 동아리에는 선남선녀가 많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기타, 키보드, 보컬 등이 어우러져 5월 스승의날 행사 공연 준비가 한창이란단.

“어려서부터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따라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박자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여느 악기보다 박자 감각이 중요한 드럼. 또한 모든 악기를 리드해야 하는 악기이기에 자신감 있는 연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조언한다. 2~3달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매주 월요일 드럼 동아리 연습날은 월요일과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서 그의 한 주는 화요일부터 시작된다. 무대 올림중이 있는 분께는 드럼이 ‘특효약’ 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이는 김 학우. 동아리 멤버가 더 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또 공연을 통해 봉사도 이어가고 스스로의 만족도 높일 수 있기를 기원했다. ▲



2012학년도 입학
(주)인크루트 웹개발자

패밀리가 떴다! 아버지, 아들, 딸이 모두 13학번 동기!

올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식에선 '특별한 가족'이 입학 선서를 했다.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한 고병찬 학우와 고영재 학우,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입학한 고문선 학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미사리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아버지를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한 고영재 학우, 그 훈훈한 현장 속으로 따라가본다. 글 | 편집부



• 법무행정학과 고병찬(아버지)
• 법무행정학과 고영재(아들)
• 문화예술경영학과 고문선(딸)

아버지와 아들, 딸이 함께 대학에 입학했다. 가족이 함께 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고병찬 학우는 이렇게 말한다.

“전 집안 사정상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2007년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참 재미있더군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려고 여러 곳에 문의했습니다. 다른 대학은 홍보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준 반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우편물로 보내주고 문자에 전화까지 해줬어요. 그 정성에 감동했죠. 그래서 이곳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애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고병찬 학우의 아들과 딸 역시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아들 고영재 학우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딸 고문선 학우는 어린 나이에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생생활을 했다. 고병찬 학우는 자녀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지 않고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터. 이에 대해 그는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그릇이 있고, 공부에도 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고영재 학우는 마침 법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유학에서 돌아온 고문선 학우 역시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했다. 고병찬 학우는 자녀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열어줄 적당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비를 지원할 테니 함께 대학에서 공부하자고 제안했고, 자녀들은 흔쾌히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봄비 내리던 주말, 고병찬 학우 가족이 미사리에 위치한 어느 한정식당을 찾았다. 평소 아버지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고영재 학우가 자리를 마련한 것.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지고 가족들은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며 즐거운 대화를 시작했다. 막 대학에서의 첫 학기를 보내고 있는 고병찬 학우 가족에게 학교생활은 어떤지 물어보았다. 고문선 학우는 학교라는 공통분모가 생긴 후 가족과의 대화가 많아져 좋다고 한다. 올해 20살인 그는 과에서 막내지만 과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를 맡고 있다. 평소 관심있던 분야라 학과 공부도 정말 재미있다고.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서 선후배 간 교류가 활발한 점도 마음에 든다고 한다.

고병찬 학우는 수업을 따라잡기가 녹록지 않다고 한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터라 온라인 강의를 듣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만, 학과 과목들이 아직은 어렵고 낯설다고. 그래도 사업체를 운영하며 궁금했던 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재미있다고 한다.

고영재 학우는 바쁜 와중에도 도움이 되는 강의는 반복해서 볼 정도로 열심이다. 그는 양질의 강의를 통해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엄지를 추켜들었다. 또 지식을 선물해준 아버지 덕분에 법무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 쑥스러워 아버지께 속마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고영재 학우는 이날 장문의 문자메시지로 사랑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문선 학우 역시 적지 않은 연세에 공부를 시작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장학금을 받아 아버지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아들의 웃음에 아버지는 낙오자 없이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녀들을 격려했다. 이 특별한 신입생 가족은 이제 4년 뒤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날을 꿈꾸고 있다. ▲



희망의 등불

글 | 김용희 교수(부동산학과)



새 해 가 밝 았 습 니 다 . 새 정 부 가 출 범 했 습 니 다 . 이 제 희 망 의 등 불 을 내 겠 니 다 .

중년의 남자 셋이 홍천 성당에서 만났습니다. 전 스포츠 선수(박찬호)와 탤런트(차인표)와 스님(혜민)입니다. 달빛 내리는 산장에서 인생사 이야기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잠시 길옆에 앉아 숨을 고르며, 행낭에 쌓인 각자의 삶의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스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선수도 옵니다. 트위터 하는 스님은 올라온 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새벽 3시에 메신저를 올리는 힘겨운 이, 취업전선에서 불합격 통지에 이젠 무감각해져가는 자신이 싫어지는 젊은이, 희망의 출구를 잃어가는 그런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얇은 위로밖에 없다면서 옵니다.

숙세를 떠나올 때 노부모가 생일 밥상을 차려준 이야기를 할 때는 울지 않던 스님이, 힘겨운 이웃들 때문에 옵니다. 선수는 단칸방에서 자기를 키워주신, 단벌 운동복을 한밤중에 세탁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찌든 가난과 한없이 내어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추억하면서 옵니다.

눈물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한 분은 자기를 위해 울고, 다른 한 분은 타인을 위해 옵니다. 우리 세속인들이야 모두 자기를 위해 옵니다. 지난 시절의 아픈 추억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현실이 피다 붓는 희망과 절망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울어주는 타인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새 정부는 할 일이 많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울어내야 할 말은 바 소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상가 건물주는 매년 월세를 올립니다. 세입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 통장에 입금하기 바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해마다 9%씩 월세를 올리면 5년이면 50%가 넘습니다. 주택임차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을 법정상한선 운운하는 세입자는 2년 만기 후 내보내면 됩니다. 주택은 부족한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날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온 힘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의무요 역할이라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희망의 등불을 내겁니다. 만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차마 떨치고 갈 수 없어서...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내년 새해 벽두에는 스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우리 모두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

연령대별 부자 아빠 되기

올해 봄은 유난히 추웠다. 4월엔 눈까지 내렸다. 독특한 경험이지만 해도 ‘눈 오는 봄’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봄 상품을 준비했던 상인도, 봄나들이를 준비했던 가족도 낭패였다. 재테크도 그렇다. 은퇴를 앞둔 50대가 대박을 노리고 ‘아니면 말고’식 투자에 나서는 것은 봄에 오는 눈만큼이나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일이다. 거꾸로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있는 30대가 예·적금만 붙들고 있어도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소득수준과 가계의 비용 부담 등 각자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령대별로 적절한 방식의 재테크가 따로 있는 셈이다.

글 | 김영호 중앙일보 경제부문 기자

20

재테크를 배우고 익히는 시기

흔히 사회 초년병은 ‘쥐꼬리 같은 돈으로 재테크를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고,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다음 단추가 줄줄이 어긋난다. 20대가 키워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돈 쓰는 요령이다. 직장인이려면 연말정산을 늘 염두에 두고, 이왕이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지출을 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금융상품에도 처음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세금 부담 면에선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이 일반 은행보다 유리하다. 개인당 연간 3,000만 원의 예·적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첫 월급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적은 돈이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거나, 한두 번의 재테크로 대박을 낼 것이란 기대는 접어야 한다. 대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조금씩 불려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을 이기는 투자는 없다’라는 재테크 격언이 있다. 꾸준히 재테크를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금도 쌓여가기 마련이다. 종자돈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쌓이는 게 늘어난다.

30

본격적으로 평생 재테크가 시작되는 시기

30대는 종자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시기다. 안정적 직장이 있다면 공격적인 투자도 해볼 만하다. 다소 실패를 하더라도 만회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100-나이=공격 투자 비율’이라는 재테크 공식도 활용할 만하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 35세는 100에서 35를 뺀 65%가 공격 투자 비율이 된다. 여윌돈 중 65%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에 넣어보라는 얘기다. 여기서 공격적 투자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지만 수익도 큰 주식형 펀드 등을 말한다. 30대는 또 본격적으로 평생 재테크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72법칙’도 도움이 되는 재테크 공식이다. 이는 자신이 투자한 돈이 두 배가 되는 시점을 측정하는 도구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의 적금을 들었다면, 72를 4로 나누면 18이 나온다. 즉, 연 4% 이자의 적금을 들었다면 18년 후 원금의 두 배가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기간을 단축하려면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찾아야 한다. 각자 목표하는 수익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투자 비율을 미리 정해 여윌돈을 적절히 분배해 굴리는 것이 필요하다.

40

노후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기

40대는 30대보다 평균 소득이 높지만, 쓸 돈도 많다. 그러나 이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40대는 자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노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연령대다. 노후 준비의 기본은 ‘3층 연금’이다. 국민연금을 들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개인연금을 붓는 식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이 있고, 일부 제도는 고칠 점도 있지만 국민연금만큼 안정적인 연금도 없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은 국민연금뿐이다. 40대가 해야 할 일 중 또 다른 것은 재테크 스타일의 변화다. 40대 후반부터는 한번 실패하면 이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때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로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장성 보험을 확보하는 것도 40대를 넘기면 어려워진다. 보장성 보험을 들 때는 저축이 아

니라 비용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가 덜 드는 상품보다는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보장성의 보험료 비율은 월소득의 10%가 적당하다고 권한다.

50

재산 지키기에 대한 준비 시기

40대까지가 재산을 불리는 시기라면, 50대는 재산 증식을 하면서 동시에 재산을 지키기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시기에 늘 염두에 뒀야 할 재테크의 포인트는 ‘집’이다. 50대에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비중을 낮추면서, 현금성 자산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을 짜야 한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리 수익성이 뛰어난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해도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를 이길 순 없다. 100세 시대인 만큼 첫 직장에서 은퇴한 후 마냥 쉬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축적돼 있다면, 예전 직장의 월급보다 훨씬 못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었거나 즐길 수 있는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정신적·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60

상속·증여를 고려한 재테크가 필요한 시기

60세 이후에는 상속·증여를 염두에 둔 재테크가 필요하다. 연금 등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다면 즉시연금이나 역모기지론(주택연금)도 활용할 만하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으면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형태다. 또 60대 이후에는 이자율에 민감해져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목돈을 은행 등에 넣고 이자로 생활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재테크 자금 자체가 적은 20~30대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0.1% 차이의 이율도 이 시기에는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이 시기는 다른 소득이 없이 이자만 바라보고 생활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자율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테크를 해야 한다. ▲



사이버 공격,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3,000만 시대를 맞아 모바일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액결제 같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스파이앱 설치를 통해 도청을 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감시한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더욱 높아진 개인정보 유출, 진단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글 | 김원석(전자신문 비즈니스IT부 차장)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 10건 중 9건은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해킹 방법은 ‘지능형 지속위협(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다. 지난 3월 20일 오후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을 공격한 기법이다. 2009년 7월 7일 청와대와 국민은행 등 주요 사이트를 공격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는 과거 방식이 된 지 오래다.

APT는 특정 목표물을 겨냥한 표적공격으로,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42% 증가했다. 최소 3개월, 많게는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국가 중요시설과 개인정보 및 특허나 설계도면 등 지식재산을 노린다. 2011년 4월 H사 해킹, 2011년 7월 S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이 같은 APT 공격기법이 사용됐다.

APT 공격은 제로데이 취약점 등을 통해 특정 기업이나 조직 네트워크에 침투한다. 일단 활동 거점이 마련되면 기밀정보를 수집해 지속적으로 빼돌린다.

공격 성공률을 높이고 보안탐지 기법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게 특징이다. 피해를 당한 기업도 보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APT 공격에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PT 공격에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사회공학적 기법도 동원된다.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이 대표적이다. 정부 고위관료, 핵발전소 시스템 관리자, 은행 서버 관리자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캐내

기 위한 공격이다. 가령 3·20 사이버 공격에 놀란 이용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한 악성코드 배포가 그것이다. 3·20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불안해하는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한다.

최근에는 특정 홈페이지를 방문만 해도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워터링 홀(Watering Hole)’ 기법까지 등장했다. 해커 그룹은 공격대상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감염시킨 후 잠복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다. 이 같은 공격은 탐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전염성을 높인다.

전자금융 사기도 지능화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사고도 증가세다. 2011년에는 김·경, 금감원 등 공공기관 사칭이 많았으나, 2012년에는 은행 사칭 피싱 사고가 3,968건 발생했다.

스마트폰에서는 스미싱, 파밍 주의보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중 6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3월 말 현재 국내 휴대폰 사용자 3명 중 2명이 스마트폰족이다. 그런데 이 같은 스마트폰 대중화는 신종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덩달아 높아졌다.

스마트폰 3,000만 시대를 맞아 모바일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액결제 같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스파이앱 설치를 통해 도청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감시한다. 지난 수년간 발생했던 PC 기반 개인정보 유출 채널이 이제는 모바일로 옮겨

가는 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신종 모바일 악성 앱 신고 현황은 지난해 11월 4건, 12월 8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55건, 2월 124건으로 급증세다.

전 세계적으로도 모바일 악성코드는 58% 급증했다. 특정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뒤 기기에 들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악성코드를 심은 앱을 보내는 방식이다.

올 들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SMiShing)을 이용한 개인정보와 금전탈취가 확산 중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폰으로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악성코드가 깔린 금융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 사기 수법이다. 전문가들은 은행을 사칭해 보안 등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되면, 바로 삭제할 것을 주문한다. 만약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커들은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돈을 빼내간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국내 모바일 보안 제품을 설치하는 게 안전하다. 안랩의 V3 모바일, 이스트소프트 알약 안드로이드 등 전용 백신이 공급 중이다.

진짜 같은 가짜 애플리케이션 역시 금융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악성 앱을 통해 단말기 정보는 물론 저장된 전화번호, 인증정보, 위치정보 등의 유출 위험도 확대됐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중 6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3월 말 현재 국내 휴대폰 사용자 3명 중 2명이 스마트폰족이다. 그런데 이 같은 스마트폰 대중화는 신종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덩달아 높였다.”

뛰는 놈 위에 있는 나는 놈을 잡아라!

보안 기업들은 요즘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해킹정보 공유를 강조한다. 지능형 지속위협(APT)등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양상군자를 잡기 위해선 문지기 역시 ‘스마트, 인텔리전스화’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아무리 수비 인력을 늘리고, 방화벽 등 하드웨어 투자를 확대해도 공격의 통로(Hole)는 존재한다는 게 정설이다. 100명의 경비원이 1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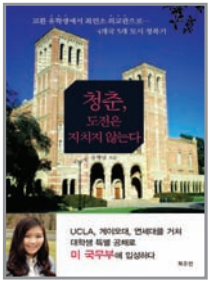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많은 금융권에 서도 대응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새벽 취약시간에 인터넷뱅킹으로 300만 원 이상 송금할 경우 2채널 인증을 도입하는 보안정책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새벽시간에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돈을 이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동일 계좌에서 누적으로 3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갈 경우,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인증 또는 2채널 인증(전화승인)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대체수단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사용건수가 700만 회를 돌파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비롯해 유선전화 또는 스마트폰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2채널 제도가 그것이다.

해킹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또 초고속 디지털 사회에서 아날로그적 삶을 가끔씩 영위하는 것도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길이다. ▲

BOOK

청춘, 도전은 지치지 않는다

교환 유학생에서 최연소
외교관으로 4개국 5개 도시 정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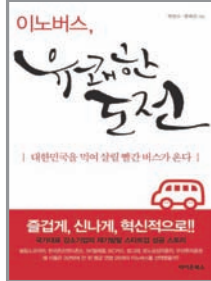
24세라는 어린 나이에 최연소 미국무부 외교관이 된 저자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아름다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지치지 않는 꿈 이루기 프로젝트’를 가슴에 품고 늘 도전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70여 컷의 사진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명문대 캠퍼스 스케치와 함께 학습 스타일, 교환 유학 생활의 알짜 정보, 이색적인 문화 체험들을 실속 있게 즐기는 팁을 소개하고 외교관으로서 펼친 이상과 포부 등을 들려주며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동기 부여와 감동을 전해준다.

●유해남 지음 | 북오션 | 정가 13,000원

이노버스, 유쾌한 도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빨간 버스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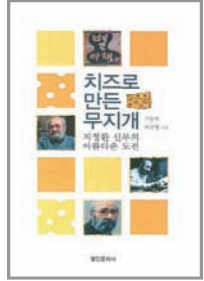


이노버스, 평균연령 28세 청춘이 모여 창업 3년 만에 매출 50억 달성!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노버스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3년 전, 구로디지털단지역 오피스 빌딩 한편에 간판도 없이 문을 연 회사가 있다. 창업 1년 반 만에 인터넷 업계의 대표적 어워즈에서 4개 부문 중 2개 부문 대상, 1개 부문 최우수상, 1개 부문 금상을 차지하는 등 영리한 성장을 이루어온 미래진행형 강소기업 이노버스의 무모하고 거침없는 유쾌한 도전을 따라간다. 화려하게 포장된 대기업의 성공 스토리보다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노버스와의 대화를 통해 인터넷 업계의 새로운 롤모델을 세우게 될 것이다.

●박현우, 한희진 지음 | 라이온북스 | 정가 12,000원

치즈로 만든 무지개

지정환 신부의 아름다운 도전



이 책은 2002년 호암상 사회봉사부문을 수상한 디디에 세스테벤스 신부, 즉 지정환 신부의 한국에서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193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난 디디에 세스테벤스(지정환 신부)가 두 번째로 부임한 임실에서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들의 꿈에 ‘산양’과 ‘치즈’라는 방법을 제시하여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 책은 지정환 신부가 임실에서 ‘임실치즈’를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이야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야기, 뜻하지 않은 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 교육과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고동희, 박선영 지음 | 명인문화사 | 정가 12,000원

MOVIE



라자르 선생님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애벌레를 품어주는 나무가 되어줄게!”

모국에서 교사였던 아내와 두 자녀를 잃고 캐나다로 망명 온 라자르는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 대체교사로 지원한다. 신기한 듯 이방인 선생님을 반기는 아이들. 하지만 라자르는 아이들이 마음 속 상처를 숨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유난히 잘 따르는 알리스에게 위로 받고 심통쟁이 시몽도 달래면서 어느덧 상처가 아물어가던 그는 뜻하지 않은 일로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게 된다. 상처를 가진 아이들과 교사의 교감과 힐링과정을 그린 영화로 엔딩 장면에서 긴 여운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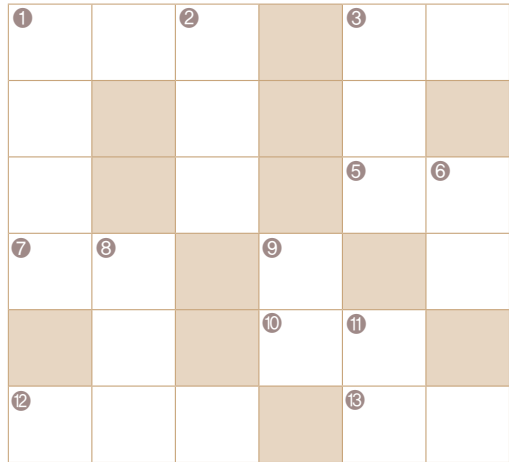
개요 | 코미디, 드라마 / 캐나다 / 5월 개봉

감독 | 필리프 팔라도

출연 | 모하메드 엘라그, 소피 벨리스, 에밀리언 펠

PUZZLE

SCU 팡팡



※ 정답자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1만 원권)을 제공합니다.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홈-대학생활-이벤트)로 들어가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 ① 꽃의 모양을 놓아 짠 돗자리. 강화도 ○○○○
- ③ 지구 표면의 일부나 전부의 상태를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실제보다 축소해서 평면상에 나타낸 것.
- ⑤ 성명, 주소, 직업 따위를 적은 네모난 종이쪽.
- ⑦ 임금이 몸소 쓴 문서나 편지.
- ⑩ 세계 최고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시대의 대표 기업.
- ⑫ 최근 본교 캠퍼스에 새로 설치한 조형물.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시계를 장치한 높은 탑.
- ⑬ 농촌을 떠나 제2차·제3차 산업에 취업했던 사람이 농업에 환류하거나 환류시키는 것.

세로

- ① 화랑(花郎)의 이념인 다섯 가지 조건을 실행하는 정신(精神).
- ② 강화도 외포항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영화 《시월애》와 《취화선》의 촬영 장소로 유명한 곳.
- ③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뜻으로, 나이 50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⑥ 전라남도 서부에 위치한 지명으로 함풍(咸豐)과 모평(牟平) 두 현이 합쳐진 지명으로 해마다 나비축제가 열리는 지역.
- ⑧ 대한민국에 속하는 사람의 계통.
- ⑨ 곡식을 뿔거나 찢는 데 쓰는 용구.
- ⑪ 글이나 시문(詩文)의 토막토막 끊어진 구절(句節).

CLASSIC

필립 헤레베헤 &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2006년 첫 내한공연에서 국내 고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고음악의 거장, 필립 헤레베헤가 7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지극히 정제된 사운드와 과장하지 않는 진실한 음악성으로 관객의 마음 깊은 곳까지 진한 여운을 남기는 고음악의 거장, 필립 헤레베헤가

이끄는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인 상젤리제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38번, 40번, 41번을 연주한다.

●일시 : 2013. 5. 31. 오후 8시

●장소 : 용인문화재단 포은아트홀

MUSICAL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가 1945년에 발표한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원작으로 한다. 이 작품은 유럽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비결은 바로 이야기 자체의 매력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로마, 파리 등 유럽을 배경으로 흥미진진한 추리 과정을 통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기간 : 2013. 6. 8 ~ 8. 4

●장소 : 충무아트홀 대극장

제9차 SCU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총동문화장 취임식



2013년 제9차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제5대 총동문화장 취임식이 3월 30일 빅토리아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동문화 경과보고 및 결산, 달라진 회칙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제5대 김진철 총동문화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김진철 총동문화장은 “모교 사랑 및 동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13 신·편입생 지원자 초청 공연 및 전시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신·편입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 및 영화, 전시 관람권을 증정했다. 지난해 12월 11~16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ART ASIA 2012’ 전시는 동양 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아시아 17개 국의 대표적 현대 미술가와 갤러리가 참가하는 형식의 아트페어로, 추첨을 통해 1인 4매씩 관람권이 전달됐다.

하버드대 석지영 교수, 특강 개최



1월 16일 본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석지영(Jeannie Suk) 하버드 법학대학원 종신 교수의 특강이 이뤄졌다. SCU 일류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Life and Studying’라는 주제로,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종신교수로 임명되기까지의 진솔한 인생 스토리 및 발레, 피아노, 문학 등 예술 분야에서의 수학 경험을 법학과 연결시킨 그녀만의 창의적인 연구와 실험적인 강의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SCU GOLF 동아리 기부금 전달



서울사이버대학교 GOLF 동아리는 모교에 장학금 12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오은희 동아리 회장은 “이번 기부 행사를 통해 앞으로 많은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3학년도 1학기 SCU 멘토링 결연식 및 워크숍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는 3월 9일 본교에서 SCU 멘토링 결연식을 진행했다. 2013학년도 1학기 멘토링 결연식에서는 총 108개 그룹의 멘토와 멘티들이 첫 만남을 갖는 자리가 마련됐다. 3월 23일 진행된 멘토링 워크숍에서는 권구순(교양학부) 교수가 멘토들을 대상으로 멘토의 어원, 자질, 활동 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으며, 기존 활동 멤버 중 우수

멘토를 초빙해 실질적인 활동 예시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재학생 초청 영화〈사랑의 온도〉시사회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씨네21이 공동으로 진행한 영화 〈연애의 온도〉시사회가 지난 3월 18일 CGV 왕십리에서 진행됐다. 3월 4일부터 10일간 씨네21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 50명에게 1인 2매씩 관람권이 증정됐다.

윌리엄 밀러 초청 카운슬링 포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국상담과학학회와 2월 13~14일 이들 동안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상담심리의 대가인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 교수를 초청해 카운슬링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 주제는 ‘Quantum Change(퀀텀 체인지)’로, 작은 통찰로 일상적인 삶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하며, 현실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방식이 변하면서 개인의 핵심 가치를 비롯한 삶도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 부동산 투자기법 교육과정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NPL(부실채권)과 비동화채권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기법’ 교육과정을 무료로 개설했다. 부동산학과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부동산학과 재학생 및 동문에게 실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동산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되었다. 3월 23일부터 총 4회 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부동산 투자 교육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박태형 교수가 담당한다.

김주원 동문, 동양인 최초 ‘마그리트와 아람앙’ 무대 서



발레리나 김주원 학우(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 전공)가 동양인 최초로 ‘마그리트와 아람앙’ 무대에 섰다. 4월 5~7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안무가 프레더릭 애슈턴의 작품으로 아무에게나 공연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6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라는 타이틀을 벗은 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섰 첫 무대로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13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컴퓨터 활용 무료특강



2013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활용 무료특강’이 인기리에 진행됐다. 3월 6일 진행된 이번 특강은 2013학년도 1학기 수업을 앞두고 평소 컴퓨터 활용에 자신이 없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무료특강이다.

사회복지학과 정영애 교수 서울특별시장 표창



사회복지학과 정영애 교수는 현재 서울시 민복지기존 추진위원회 돌봄분과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4월 16일 서울특별시 장으로부터 서울시 복지정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가족상담학과 엄정희 교수 『오리의 일기』 출간



유통업계의 스티브 잡스, 홈플러스스 이승환 회장을 내조한 가족상담학과 엄정희 교수는 지난 48년의 일기를 묶어 ‘아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에게 드리는 힐링 메세지’라는 부제로 책을 출간했다.

SCU 무료 예비대학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3학년도 신·편입생 및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무료 예비대학을 개설했다. 15개의 교양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예비대학은 배움의 문턱을 낮추고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서울사이버대학만의 차별화된 혜택이다.

이세웅 이사장 동신교회에서 한류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은 지난 3월 6일 동신교회 제2교육관 회년홀에서 ‘세계는 왜 한류에 열광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전국 KT Olleh Smart Working Center 이용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KT와 협약 체결을 통해 ‘Olleh Smart Working Center’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올레 스마트 워킹센터는 개인 공간, 4~6인용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빔프로젝트 및 OA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스터디, 멘토링, 학과모임, 지역모임, 특강 등을 위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일 3일전 학생지원(02-944-5234)을 통해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교수 동 정



권금주 교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 출간
복지시설경영학과 권금주 교수는 2013년 3월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도서출판 나눔의집)을 출간하였다.



김윤나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게재 및 저서 출간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는, 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지에 논문 「다문화 감수성, 인권인식, 임파워먼트의 비교분석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방안」을 게재하였으며, 2013년 3월 『e-사회복지개론』(신정출판사)을 출간하였다.



김지연 교수, 상담심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는, 2012년 12월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학술지에 논문 「치매환자 보호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연구」를 게재하였다.



김현진 교수, 교육심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는, 2013년 2월 한국열린교육학회 학술지에 논문 「미국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사고의 특징 및 인식론적 신념과의 관계분석」을 게재하였다.



박병석 교수,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 출간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2013년 1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중합연구 협동연구 총서의 일환으로 저서(공저)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를 출간하였다.



박종선 교수, 『스마트이러닝』 출간
교양학과 박종선 교수는, 2012년 12월 『스마트이러닝』(교문사)을 출간하였다.



박형원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박형원 교수는,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에 논문 「해외이주 한인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게재하였다.



오창환 교수, 『디지털 논리회로 이해』 출간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오창환 교수는, 2013년 3월 『디지털 논리회로 이해』(한국학술정보)를 출간하였다.



이남옥 교수, 가족상담 관련 논문 게재
가족상담학과 이남옥 교수는, *Deutsche Gesellschaft für Psychologie* 학술지에 논문 「한국가족을 통해 본 가족관계의 세대전승」을 게재하였다.



이성태 교수, 게임 관련 논문 게재 및 작품 전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2012년 12월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학술지에 논문 “Gamification Movement : ‘Gamification@’”을 게재하였으며, 2013년 2월 Korea Society of Design Trend가 주최한 ‘Malaysia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 2013’에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우경 교수, 상담심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SSCI저널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월호에 논문 “Self-compassion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psychological health in Korean cyber university students”를 게재하였다.



이자영 교수, 군상담 및 청소년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는, 2012년 12월 한국상담학회 학술지에 논문 「직업군인(부사관)의 소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을, 한국청소년학회 학술지에 논문 「역경,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이점발견이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하였다.



이재웅 교수, 부동산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이재웅 교수는, 2013년 1월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지에 논문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의 법률효과에 대한 고찰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이정원 교수, 군상담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는, 2012년 12월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학술지에 논문 「징병 및 훈련소단계에서의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식별과 관리 상황」을 게재하였다.



임세희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는, 2012년 12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지에 논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영리·비영리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하였다.



임태순 교수, 금융학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2012년 12월 출간한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지에 논문 「노후준비를 위한 주식형 개인연금 자산운용의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게재하였다.



전광호 교수, 경영학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는, 한국유통학회 학술지에 논문 「위기책임귀인과 위기대응 메시지 유형이 유통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하였다.



전호진 교수, 금융학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전호진 교수는, 2012년 12월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학술지에 논문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 변경과 ADR가격 결정요인」을 게재하였다.



한수미 교수, 『청소년상담사 3급』 출간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2013년 1월 『청소년상담사 3급』(정훈사)을 출간하였다.